

# 손흥민 45초 벼락골... '리그 7골' 득점 공동 선두

A매치 휴식기 후 웨스트햄전 선발  
EPL 통산 60골·케인에 2호 도움  
토틀넘, 후반 무너져 3-3 무승부

2주의 A매치 휴식기를 보낸 손흥민(토틀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도움도 추가했으나 팀은 막판 잇단 실점으로 승점 1을 따내는 데 그쳤다.

손흥민은 19일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0-2021 EPL 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첫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리그 7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도미니크 칼버트-르윈(에버턴)과 득점 순위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 골은 손흥민의 EPL 통산 60호 골이기도 하다.

그는 전반 7분가량이 지날 때는 해리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해 도움도 작성, 이번 시즌 리그 2호 도움을 올렸다.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왔던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EPL 4라운드 2골 1도움에 이어 2경기 연속 ' 멀티 공격 포인트 ' 행진이다.

손흥민은 10월 A매치 기간에 영국에서 휴식을 취하며 토틀넘 일정에 집중했다. 그 덕분에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그컵을 포함해 통산 11경기 5골 6도움을 올려 '천적' 면모를 뽐냈다.

하지만 이런 활약이 토틀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손흥민이 1골 1도움, 케인이 2골 1도움을 폭발하며 전반 3-0으로 앞서다가 후반 37분부터 내리 3골을 내줘 웨스트햄과 3-3으로 비겼다.

손흥민(S), 케인(K), 베일(B)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함께 뛰며 이른바 'KBS 트리오'도 첫선을 보였다. 손흥민이 후반 35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돼 나가면서 'KBS 트리오'의 가동 시간은 길지는 않았다. 베일에게 복귀 기회를 주고 손흥민을 뺀 건 토틀넘이 승리를 예상했다는 뜻이었을 테지만, 이후 허무하게 무너졌다.

토틀넘은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파비안 발부어나에게 헤딩 만회골을 내주고, 후반 40분에는 다빈손 산체스의 자책골까지 나왔다.

흐름을 완전히 내준 토틀넘은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모두 지날 때쯤엔 마누엘 라니시니에게 중거리 포가치 얻어맞았다. 승점 3이 1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래~ 이 맛이야" 토틀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1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군단, 홈 팬들과 '뜨거운 재회'

오늘부터 잔여 경기 일정...NC·삼성과 홈 5경기 장현식 선발 테스트

###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홈팬들과 재회한다. 5강 싸움 분위기는 식었지만 뜨거운 플레이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원정 6연전을 다녀온 KIA 타이거즈가 20일 NC 다이노스와 안방에서 대결한다.

20일부터는 잔여 경기 일정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들쭉날쭉하다. 하지만 KIA는 앞서 가장 많은 10경기 기록을 비로 처치 못하면서 30일 최종전까지 매일 경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는 홈에서 5경기가 진행된다.

20-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와 상대하는 KIA는 22일 대전 원정을 다녀온 뒤 안방에서 한 주를 마감하게 된다. 23일 LG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고, 24-25일에는 삼성과 2연전을 치른다.

8월 16일 SK전 이후 닫혔던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다시 열린다.

1차 관중석 개장 당시에도 KIA는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가장 늦게 홈팬들을 마주했

다. 지난 13일 관중 입장이 다시 시작됐지만, KIA는 원정 6연전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번에도 가장 늦게 홈팬들과 재회한다.

KIA 선수들도 팬들도 기다렸던 순간이지만 기대했던 가을 분위기는 아니다.

KIA는 지난주 창원 원정에서 위닝시리즈는 가져왔지만, 잠실 열세 속 루징 시리즈로 LG전을 마감했다. 3승 3패로 제자리걸음하면서 5위 두산과 5.5경기 차로 멀어졌다.

사실상 5강 싸움은 끝났지만 홈팬들 앞에서 박수 받는 경기를 해야 한다. 승리도 승리지만 잘 지켜야 한다. 무기력한 패배가 아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일 장현식이 선발 후보로 테스트를 받는다. 선발로는 지난 9월 25일 KT전 이후 두 번째 출격이다. 상대는 최근 4연승 중인 송명기다.

장현식은 지난 8월 12일 트레이드를 통해 김태진과 KIA 새 식구가 됐다. 문경찬, 박정수 두 투수를 내주고 영입한 자원이지만 이적 후 성적은 썩 좋지는 못했다.

이적 후 두 번째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이어

■ KBO 중간순위 (1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계입차
1	NC	136	80	4	52	0.0
2	LG	139	77	3	59	5
3	KT	136	76	1	59	5.5
4	키움	142	79	1	62	5.5
5	두산	137	74	4	59	6.5
6	KIA	134	69	0	65	12
7	롯데	134	68	1	65	12.5
8	삼성	138	61	4	73	20
9	SK	138	48	1	89	34.5
10	한화	138	43	3	92	38.5

홀드도 기록하는 등 3승 6홀드는 올렸지만, 기복이 아쉽다.

장현식은 KIA 유니폼을 입고 27.1이닝을 던지는 동안 15개의 볼넷과 5개의 피홈런을 허용, 9.5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최근 10경기로 좁혀보면 평균자책점이 13.50까지 오른다.

치열한 5강 싸움을 하던 KIA는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걸음이 멈췄다. 내년 시즌 구상도 마땅치 않은 만큼 남은 경기에서는 2021시즌을 위한 큰 틀도 그려야 한다.

장현식이 최근 부진을 털고 선발 자리를 붙잡고, 송명기의 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청 김국영·강다슬 100m 동반 우승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남녀 일반부...강, 기록 단축

광주시청 김국영(29·사진 오른쪽)과 강다슬(28)이 문체부 장관기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남녀 일반부 100m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김국영은 19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문체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겸 2020 예천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가 남자 일반부 100m 결선에서 10초31로 정상에 올랐다.

10초51의 이규형(경산시청)과의 격차는 0.30초였다.

한국남자 100m 기록(10초07) 보유자인 김국영은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복무하다 9월 16일에 전역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2019년 10초12, 2020년 10초29로, 한국 시즌 최고 기록을 낸 김국영은 전역 후 처음 치른 경기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그러나 초속 0.5m의 맞바람에 쓸쓸한 날씨 탓에 기록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김국영은 군복무기간 통증을 느꼈던 아킬레스건 치료를 위해 마지막 한달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광주시청 복귀 무대인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올 시즌 일정을 마친 김국영은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10초05) 통과를 노리며 2021시즌을 준비한다.

여자 100m에서는 강다슬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강다슬은 결승에서 11초75의 기록으로 김민



지(서울시청·12초13)와 한예슬(엘에스지·12초36)을 각각 2, 3위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7월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에서 11초87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2위에 올랐던 강다슬은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기록단축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광주시청 김민균과 강희빈도 결승에 나섰으나 입상에는 실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월드시리즈, 내일부터 탬파베이 vs 다저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극적으로 월드시리즈(WS)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미국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1승 3패로 밀렸던 다저스는 5, 6, 7차전을 내리 따내며 W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19일 열린 NLCS 7차전에서 애틀랜타

에 4-3으로 역전승했다.

2-3으로 뒤진 6회말, 대타로 등장한 엔리케 에르난데스는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터뜨렸다. 3-3으로 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코디 벨린저가 우월 역전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다저스는 7회부터 등판한 홀리오 우리아스가 9회

까지 3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WS행을 확정했다.

21일부터 열리는 WS 상대는 아메리칸리그 최고 승률(40승 20패, 0.667)을 찍은 탬파베이 레이스다. 다저스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WS 우승을 노린다. 1998년 창단한 탬파베이는 역대 첫 WS 우승에 도전한다. 탬파베이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WS 무대를 밟는다.

국내 팬들에게는 한국인 타자 최초로 WS 진출에 성공한 최지만의 활약 여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